

‘행복한 저자’의 시원한 여름나기

내가 읽지 않은 책은 이 세상에 없는 책이다

장정일

시인

어린시절의 내 꿈은 이런 것이었다. 동사무소의 하급공무원이나 하면서 아침 아홉시에 출근하고 오후 다섯시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발씻고 침대에 드러누워 새벽 두시까지 책을 읽는 것.

누가 이것을 소박한 꿈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도 없이, 다만 딱딱한 침대 옆자리에 책을 쌓아놓고 원없이 읽는다는 건 원대한 꿈이다. 그러나 나는 재수없게도 공무원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행복한 저자’역을 맡지도 못했다. 시인이라 꿈에도 원치 않았던 개똥 같은 코메디짓과 함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불행한 저자’이다.

내가 읽지 않은 책은 이 세상에 없는 책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내가 읽어보지 못했으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톨스토이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그 책을 읽어야 한다. 내가 한편의 낯선 책을 읽는 행위는 곧 한편의 책을 쓰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읽는 모든 책의 양부가 되고 의사저자가 된다. 막연하나마 어린시절에 꿈꾼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선해서 골라든 책을 안고 침대에 누워, 밑줄을 긋거나 느낌표 또는 물음표를 치면서 나 아닌 타자의 동일성에 간섭하고 침잠하는 일. 한편의 책읽기가 끝나면 뒷장에 내 식의 ‘저자 후기’를 주서하는 일. 나는 그런 ‘행복한 저자’가 되고 싶었다.

‘행복한 저자’는 ‘다작의 저자’가 되는 것으로 즐거워지며, 자신을 뽐낼 수 있다. 지난 6, 7월 두달 동안 나는 약 60권의 책을 새로 썼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하루에 한편 풀 이상의 새로운 책을 쓴 저자는 없다. 60여권의 책 가운데는 ‘해외결작선’이라는 이름으로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미국현대소설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다. 읽은 차례대로 제목을 열거하면, B. 말라무드 「점원」, J. 가드너 「산 그림자」, J. 코진스키 「하늘을 빼앗긴 새」, J. 엡다이크 「귀향」, T. 모리슨 「내 이름은 술라」, P. 로스 「그녀가 좋았을 때」이다. 멋모르고 지은 죄를 속죄하고자 자신이 강도질한 식료품 가게의 점원이 되어 망해가는 점포를 일으켜 세우려는 한 젊은 청년의 고행을 그린 말라무드의 작품은 여섯 권의 ‘해외결작선’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코진스키의 작품은 전쟁터에 버려진 한 십대 소년이 동구유럽의 산악지를 떠돌며 겪는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 브레히트의 시 「소년 십자군」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했고, 모리슨의 소설은 마르케스의 매직리얼리즘 작품을 연상케 했는데 예바가 입양한 듀이 형제에 관한 에피소드는 특히 그렇다.

책들은 쌓여 있고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기를 기다린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나 역시 서로 비슷한 주제의 두권의 책이나 아니면 아주 다른 개성을 가진 두개의 책을 한꺼번에 읽는데, 그 연결을 결정하는 과학적인 기준은 없다. 예컨대 언어어 읽은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문학세계사)과 아나이 닐의 「헨리와 준」(영웅)의 경우 그 책들의 저자가 서로 연인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실제로 「헨리와 준」이 헨리 밀러와의 연사를 기록한 아나이 닐의 일기라는 사실 때문에 서로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아주 우연하게도 그 두책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지는 알기 어렵다. 몇권의 책을 겹쳐서 읽게 하는 것은 순간적인 직관이다. 어쨌든 그런 직관 덕에, 필모어가 파리를 떠나 미국으로 가면서 그의 애인인 지네트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한 2천 8백프랑을 헨리가 중간에서 착복하는 「북회귀선」의 한 대목을 아나이의 일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헨리는) 오스본이 미국으로 떠났을 때 그의 여자친구에게서 오스본의 유산 중 5백프랑을 교묘히 뜯어내었다.”

내게 「북회귀선」을 선사한 출판사의 한 친구는, 4만부 넘게 팔린 이 책을 끝까지 읽은 독자는 아마 천명도 넘지 않으리라고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그나 내가 지적으로 오만해서는 결코 아니고 그 친구나 나의 책읽기 훈련이 다른 독자보다 좀 더 잘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라, 매스컴에 의해 성문학의 시조로 부풀려지고 책표지에 입혀진 띠지에 ‘무삭제 완역판’이라고 씌어진 자극적 문구에 홀려 이 책을 구입한 독자는 분명히 그가 기대했던 것으로부터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두책을 읽기 전에 세세히 메모를 하면서 읽은 책이 있다. 사드의 「소돔120일」(새터).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사디즘이란 말을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같은 엽기적 성범죄나, 친구들 사이의 술자리에서 ‘그 친구 그거 사디스트야!’ 하는 식의 조롱의 범주로만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책은 사디즘의 형이상적인 윤곽을 어렵פות이 드러내 보여준다. 사드는 존재의 근본적 고독 또는 무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종교적, 사회적 은폐와 금제를 파괴하므로 자기와 세상 만물을 제압하고 신적인 초월에 다가간다. 그러나 사드가 제시하고자 하는 초월이 다른 어떤 전망을 가진 초월과도 틀리는 것은 그의 초월이 ‘무’를 바탕으로 ‘무’에 이르려는 고행의 단계일 뿐 어떠한 계몽주의적 환상과 정치적 해결도 거부한다는 점이다.

성에 대한 대담한 태도를 헨리 밀러의 소설 가운데서 찾은 것은 쉬우나 성에 대한 대담한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상하게도 그 두 가지를 더 가열하게 만족시키고 있는 「소돔120일」이 「읽어버린 너」 등의

순정소설처럼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최근에 전집이 간행되고 있는 한 문학평론가의 말을 빌면 공식문화에 길든 독자의 도덕심이 사드를 단죄하기 때문이다. 성을 주제로 하거나 불륜을 그럴 때이라도 작자는 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지켜져야 할 금기사항을 아슬아슬하게 밟고 있어야 하며 결국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공식문화의 허용선 안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사드는 그것과의 어떠한 타협도 불허하며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공식문화와 타협하는 기술인 화해적 결말이나 권선징악의 구도를 거부한다.

‘행복한 저자’가 되기 위해 수문출판사의 ‘세계산악명저선’ 가운데 H. 하러의 티베트 여행기인 「티베트에서의 7년」, 1974년의 미국 파미르 원정대의 등정기인 R. 크레이그의 「파미르, 폭풍과 슬픔」, 읽을 만한 알피니스트의 수필인 G. 라머의 「청춘의 샘」, 그리고 조정권 시집 「산정묘지」(민음사)를 들고 춘천 위도의 서늘한 방갈로에서 7월의 마지막 사흘을 보냈다. ‘행복한 저자’의 여름 구호는 이렇다. 여름에는 더 많은 책을!

